

4/21(목) 대상 1-2장 소망으로 되짚어 읽는 역사

출애굽기 중후반, 레위기, 민수기 인구조사 등을 통독 위기로 꼽지만,
역대기도 각종 족보, 조직, 명단 분량이 만만치 않습니다.

역대기는 사무엘상/하, 열왕기상/하 내용의 반복처럼 보입니다.

앞선 책들의 부록이나 부연, 참고자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.

그러나 역대기는 대제사장이 울 키푸르(속죄일) 전날 깨어 읽던 책들 중 하나입니다.

〈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?〉를 질문하며 골똘히 읽는 역사서입니다.

신명기 역사서가 〈포로기의 원인〉을 파악하며 눈물로 읽는 역사였다면,
역대기 역사서는 〈포로기 이후〉, 새로운 꿈을 꾸며 소망으로 읽는 역사입니다.

아담으로부터 지금, 여기까지 이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

그 구원이 다음 세대까지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(1-9장, 족보들).

〈무엇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?〉 공동체의 뿌리와 방향성을 찾아갑니다.

* 신명기 역사서 여호수아-사사기(룻-사무엘상, 하-열왕기상, 하

* 역대기 역사서 역대상/하-에스라-느헤미야

하나님은 다윗 자손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습니다(대상17, 삼하7:1-17).

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했습니다(대하5:14,7:2,왕상8:11).

때문에 역대기는 새 이스라엘의 비전을 〈다윗 이야기〉에서 찾았습니다.

또한 하나님을 〈예배하는 공동체〉로서의 이상을 강조합니다.

실패한 역사 속에서 소망으로 읽어가는 역대기.

역대기 통독을 통해 나, 우리, 공동체 전체가

다시금 회복해야 할 성경적 이상을 깨닫는 시간되시기 바랍니다.

나와 우리 공동체에는 어떤 〈소망〉이 있습니까?

① 우리가 회복해야 할 〈성경적 이상〉은 무엇입니까?

② 족보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름을 보면 무엇을 깨닫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대상 1-2장